KIA 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 시대 여나

늦어지는 차기 감독 발표에 외국인 감독 선임 가능성 대두
새 감독 맞춰 코치 선임 속도 내야…내부선 불만 목소리도

KIA 타이거즈가 첫 외국인 감독 시대를 열까?

KBO 포스트 시즌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을 잔치'에서 밀려난 구단들은 팀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찍 스토브리그에 돌입한 5강 탈락 팀 중 KT 위즈만 평온하다. 이강철 신임 감독을 앞세운 KT는 마지막까지 NC 다이노스와 5강 싸움을 하면서 창단 후 첫 5할 승률로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7위 KIA를 시작으로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그리고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는 폭풍의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일단 지난달 3일 롯데가 메이저리그(MLB) 스카우트 출신 성민규(37) 단장을 임명했고, 8일에는 한국프로야구 우완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정민철(47)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한화 단장으로 선임되면서 두 팀의 단장이 교체됐다. 삼성은 지난달 30일 허삼영(47) 전력분석팀장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사령탑에 변화를 줬다. 야구팬들의 눈길을 끄는 '파격 인사'의 연속이다. 실리와 소통으로 팀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선택들이다.

변화의 시즌을 앞둔 4개 팀 중 아직 KIA만 잠잠하다. 소문은 많았다. 김기태 감독의 자진 사퇴 직후 '야인'들이 빠른 행보를 하면서 이름이 오르내렸고, 성적에 따른 박흥식 감독 대행의 임기 연장 이야기도 나왔다. 내부 승진 대상자의 이름도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또 하나 눈길을 끈 후보는 '외국인 감독'이었다.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KIA의 팀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가장 입맛에 맞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KIA는 당장 우승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긴 암흑기에 접어들기 전에 차분하게 팀을 재정비하고 '왕조 재건'을 위한 틀을 다져야 하는 시기다. 다른 계산과 욕심 없이 냉정히 전력을 평가하고, 현대 야구에 맞게 안정적으로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령탑이 지금 KIA에 가장 절실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에서도 외국인 감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외국인 감독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구단 안팎의 분위기에 따라 빠르게 차기 감독 선임이 이뤄지는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리 KIA의 감독 선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일단 KIA는 선수단이 다시 소집되는 14일을 마지노선으로 선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감독에 맞춰 코치진도 조각해야 하는 만큼 감독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역시 감독 공석 상황이지만 대대적으로 코치진 정리 작업에 나선 롯데와 달리 KIA는 코치진 개편을 미루고 있다. 감독 선임 결과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마무리 캠프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6일 김기태 감독이 자진사퇴를 했다. 벌써 5달의 시간이 흘렀다. 미래를 그릴 시간은 충분했다. KIA는 서둘러 감독 선임을 끝내고 체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야구계의 최근 분위기에 맞춰 '파격 인사'로 새 판을 깔지, KIA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갚아야할 빚 1150억원 남았는데…F1 경기장 168억 투입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매년 운영 수익 1억 불과…예산확보 부담·투자비 회수도 막막

전남도가 영암 F1경주장에 추가로 168억원을 투입, 청소년 수련시설, 자동차복합문화공간, 레저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29일 F1경주장에서 진행된 '2019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경기 장면.

전남도가 F1 국제자동차경주장에 직업체험관과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는다. F1 경기가 중단된 이후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장에 추가로 168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수련시설, 자동차복합문화공간, 레저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F1 경주장 건설 등에 들어간 2848억원의 지방채 중 아직도 갚아야할 빚이 1150억원에 이르고 경주장 운영 수익도 매년 1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향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F1 경주장 내 자동차복합문화단지·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고 모터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경주장 주변 신규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복합문화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트래킹코스, VR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복합문화공간(38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전기바이크 등을 탈 수 있는 키즈 드라이빙 체험시설, 드론 축구장을 갖춘 레저스포츠파크(35억),모터레포츠게임(3억8000만원), 전기카트체험시설(4억), 도시숲(25억)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84억원의 예산은 확보한 상태다.

전남도는 또 경주장 내 경주팀원들이 머물렀던 팀빌딩과 패독(paddock) 빌딩을 리모델링해 직업체험관과 유스호스텔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F1 팀 빌딩은 영암호를 배경으로 조성된 만큼 숙박이 가능하게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4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외 내년 예산으로 18억원을 확보, F3국제대회와 전기차 경주대회, 튜닝협회 교육 등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행상품인 남도한바퀴에 끼어넣어 관광객들을 경기장으로 유인하거나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284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갚아야할 빚도 2029년까지 1150억원이 남아있는데다, 경기장 운영 수익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준이 못된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옛 전남도청 복원 박차…설계업체 선정

10월부터 안전진단·인허가 진행…2021년 착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일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설계 업체로 아이에스피건축사 사무소(이하 아이에스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5·18 관련 단체와 지역민들의 옛 전남도청 본관 등 6개 건물에 대한 복원 요구를 수용해 '옛 전남도청 등 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8년 8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월 28일 '대국민설명회'를 거친 후 설계용역 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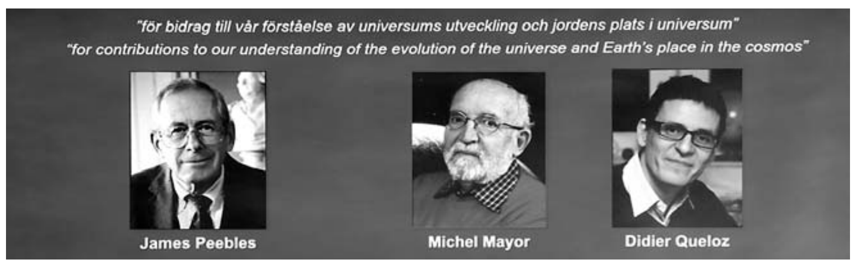
문체부는 향후 아이에스피와 계약을 맺고 10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건물 정밀 안전 진단, ▲설계, ▲구조 검토, ▲문화재현상 변경 심의, ▲건축 인·허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계용역이 끝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공사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해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복원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벨 물리학상, 피블스·마요르·켈로

우주 진화 비밀 밝힌 공로 인정…3명 공동수상



올해 노벨물리학상의 영예는 캐나다계 미국인 제임스 피블스, 스위스의 미셸 마요르, 디디에 켈로 등 3명의 물리학자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이들 연구자들을 20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광주 인쇄거리 등 3곳 뉴딜사업 신규 선정

무안·담양 등 전남은 4곳

광주 인쇄거리 등 3곳과 담양 등 전남지역 4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규 선정됐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도시재생특별회의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76곳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광주에서는 동구 인쇄문화마을 조성사업(중심시가지형 사업), 광산구 월곡2동 고려인마을사업(일반근린형), 북구 임동 야구마을 조성사업(우리동네살리기)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담양, 함평, 장흥군이 낙후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무안군의 '꿈틀꿈틀 생동하는 행복무안' 사업의 경우 LH가 제안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담양·장흥·함평의 경우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지을·김형호 기자 dok2000@

1회 30명…교육 후 가이드와 함께 관람

日 소녀상 '표현의 부자유·그 후' 전시 재개했지만 극우 반발

일본 정부의 압박과 극우 세력의 협박으로 인해 일본 국제 예술제 전시가 중단됐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8일 다시 관객들과 마주 앉았다.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의 전시를 재개했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재개는 지난 8월 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중단된 이후 두 달 여 만이다.

트리엔날레는 오는 14일 폐막해 평화의 소녀상의 공개 기간은 1주일 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전시가 재개됐지만, 전시는 사전에 신청을 한 뒤 추첨에서 뽑힌 일부 관객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전 유지를 위해 1회 30명씩 추첨으로 선정된 관람객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이드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시 내용을 확산해서도 안된다. 트리엔날레와 기획전 측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를 사용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자 모심
급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구비서류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작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위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lhmygg 참고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혜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97 (이메일 kss2377@hanmail.net)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후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4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주택·아파트
• 문흥동 동광주병원 부근 2층 주택 리모델링 완료 땅 189㎡ 집 171㎡ 교환원함 2억8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백
• 광주대학 부근 금호아파트 12층 151㎡ 올리모델링 은행 1억6800 매도 2억5500

투자·매도·교환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48900㎡ 펜션 14개등 요양병원 적합 교환가 32억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복숭아밭 4026㎡ 투자 적합 1억1500
• 전원주택지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임대 계림동 이마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유동 NC백화점 부근 상업지 306㎡ 신축 적합 건물에서 월 170수입 교환원 6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접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곡성군 목사동면 계획관리지역 234044㎡ 다용도·법인이전 10억6천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 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 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 의 010-5464-4448(주인)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